

#17의 발문을 통해 지문의 구조가 예측 가능했음!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인문>

[1문단]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①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②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2문단]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③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④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이러한**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문단]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⑥'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⑦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4문단]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문에서 "**~는 ~라 한다.**"의 패턴으로 자주 등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과 같은 문제에서 선지로 자주 활용되므로 미리 인지해 가며 글 읽기.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보이므로 앞문장과 사례와의 대응을 통해 글을 이해해야 해!

이미 우리는 발문을 통해서 지문의 구조가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등과 같은 접속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두 부류로 지속적으로 나누어가며 글을 읽어야 해!
또한 실제로 이 지문은 '본질주의 vs 반본질주의'의 지문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그와 동시에 "대조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단 안에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함!
=> 같은 해 9월 B형 [인문] 지문 확인!
=> 동일한 구조.

글의 구조가 분명 '대조 관계'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중에서 **무게중심이 '반본질주의'에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3문단의 경우 '본질'에 대응되는 '**정의**'가 **약정적이고 불완벽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문단의 경우에는 서양의 철학사, 즉 '**본질을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와 같이 '대조 관계'가 중심인 지문에서 '특정 사상이나 인물들 간의 대조관계'가 존재할 때에도 어느 한 쪽으로 글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며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여러분은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본질주의” VS “반본질주의”의 지문구조를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데”를 중심으로 논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반본질주의”는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반본질주의는 “본질이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본질주의”의 관점에 더욱 적합합니다.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불변의 고유성”이라는 단어는 반본질주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전형적으로 글을 얼마나 “받아가며” 읽는가를 묻는 선지입니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대조 관계”인 경우, **출제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묻기보다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묻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 본질주의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2. 반본질주의는 그것을 “언어약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두 사상 모두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는 선지의 내용과 대응됩니다. 즉, 해당 내용은 반본질주의 뿐 아니라 본질주의에도 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본질주의는 “본질주의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라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객관적으로 실재”라는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그럴지, “본질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본질주의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인간의 언어약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상인데, 여기서 “언어약정”과 “객관적으로 실재”라는 표현은 상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실제로 해당 문항은 A에 관해 묻고, 선지 구성은 B를 집어넣는 아주 “**알팍한**” 수준의 선지 구성입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그러나”, “반면”, “하지만” 등과 같은 접속사를 기준으로 [대조관계]를 파악하고 글을 읽어 나간 학생들이었다면 이런 속임수는 웃으면서 극복해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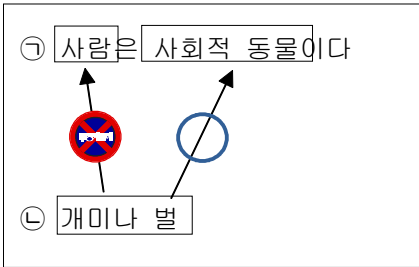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 떠오르는 문항이 없으셨나요? 이 문항에서는 “문맥상 ㉠과 ㉡의 관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례”를 묻는 문항과 동일합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B형 [인문지문]의 22번 문항의 경우,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봤죠. 하지만 18번 문항이나 올해 6월 21번 문항이나 결국에는 **주어진 선지의 내용을 “문장에 대입”함으로써 해결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이고, ㉡은 ‘개미나 벌’입니다. 우선, 이 둘 간의 관계를 3문단의 “문맥”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간의 관계는 위와 같은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시 선지에서 주어져 있는 ㉡을 ㉠에 대입하여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① 칼은 [1. 가위는 아니지만] [2. 자를 수 있는 도구는 가능] 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② 64세인 사람은 [1. 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실 애매합니다!)] [2. 65세 이상인 사람은 아님]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어머니의 여동생은 [1. 이모이면서] [2. 어머니의 여자 형제]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헤엄칠 수 없는 고래는 [1. 고래이면서] [2. 포유동물]입니다. ③번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흑연 심은 [1. 연필이라고 볼 수 없지만] [2.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도구도 아님]이므로 부적절합니다.
(혹시라도 흑연 심을 통째로 필기도구로 쓰는 분은 없죠? 혹시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필 사 드림 ㅎㅎ)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사실 <보기>가 다소 거칠어요. 무슨 말이나. 이전부터 강조해왔듯이 <보기>와 지문은 항상 “대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당 <보기>를 읽고 지문과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보기>를 읽고, 실전에서 지문과 대응하라고 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우리들의 눈에 보이게끔)” 지문과 <보기>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엄격한”과 같은 수식어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혼돈을 주기 위한 내용일 뿐입니다.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하겠네.

==>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질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반본질주의자는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인간의 언어 약정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므로 적절합니다.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하겠네.

==> 반본질주의자는 애초부터 “근원적 속성”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원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울립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정답)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19번 문항 설명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문장을 살펴 볼까요?

“이순신은 악덕한 왕이었다.” 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순신은 ‘악덕한’ 인물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한다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오히려 “이순신은 왕이 아니라 ”장군이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죠. 마찬가지로 해당 선지에서도 ”근원적 속성이 있다/없다“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원적 속성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사고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리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선지 구성은 수능국어에서 종종 튀어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의해 둡시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네.

==> 여러분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묻는 선지입니다.

- 1) 글을 얼마나 “받아가며” 읽는가.
- 2) “대조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지문의 경우, 출제자는 차이정보보다는 “공통점”에 더욱 관심이 많다!

우리는 이미 2문단을 글을 “받아가며” 읽음으로써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은 상황입니다. 정답/오답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해당 선지를 ⑤번이 아닌 ①번 혹은 ②,③과 같이 정답보다 위에 있는 선지에 이를 배치했다면 평소에 글을 “받아가며” 읽은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고민할 만한 선지였습니다. 부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받아가며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항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출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_-;